

# 강동원X연상호 ‘반도’, K좀비 시대 연 ‘연니버스’의 정점

7월 개봉 예정... ‘부산행’ · ‘서울역’ 세계관 연결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한국 최고 CG자부”

‘연니버스’(연상호 유니버스)가 열린다.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과 ‘서울역’에 이어 두 영화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영화 ‘반도’를 선보인다. ‘부산행’의 4년 후, 폐허가 된 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이 영화는 연상호 감독이 줄곧 선보여 왔던 독특한 좀비 ‘연니버스’의 완성품이 될 작품이다.

16일 오전 온라인으로 영화 ‘반도’(감독 연상호)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동원과 이정현, 권해효, 김도윤, 이레, 이에원, 김민재, 구교환이 참석했다.

‘반도’는 4년 전 나라 전체를 휩쓸어버린 전대미문 재난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정석이 피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반도에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부산행’의 세계관을 잇는 이 영화는 2020년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연상호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한 구상이 ‘부산행’ 당시 촬영 헌팅을 다닐 때 시작됐다고 했다. “‘부산

행’이 잘되면 이런 폐허에서 영화를 찍어야 하는데”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부산행’은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상호 감독은 이번 영화는 ‘부산행’과 달리 카체이싱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했다. 그는 “‘부산행’은 관객들이 캐릭터들과 함께 실제로 겪는 것처럼 체험하게 해주는 게 강점이다. ‘반도’는 관객이 실제 미지의 공간에 정석과 들어가서 미지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체험적인 영화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의 액션은 ‘부산행’과 전혀 느낌이 다른 카체이싱 좀비액션이라든가 체험형 영화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도 많은 CG가 사용됐다. 연 감독은 “이번 영화는 거의 CG로 딱칠을 했다”고 해 웃음을 줬다. 한국 최고의 스테플들이

CG를 완성한 만큼 엄청난 불거리들이 있다고 자부했다. 1년이나 들여 프리프로덕션을 한 덕분이다. 보통 상업 영화는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상호 감독의 전작 ‘부산행’은 K-좀비물이라는 말을 이끌어낸 첫번째 작품으로 여겨진다. 연 감독은 K좀비의 특징에 대해 “단순한 괴물이나 크리처의 느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우리 이웃이었던 사람, 4년전에는 내 동료, 같은 인간이었던 느낌을 많이 주는 게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항할 적이나 크리처가 아닌 어떻게 보면 희생자의 모습도 갖고 있고,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K좀비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강동원은 봉쇄된 반도에 4년만에 돌아온 처절한 생존자 정석 역을 맡았다. 이어 김도윤이 새 삶을 위해 폐허의 땅을 찾은 정석의 매형 철민, 이정현이 폐허의 땅에서 직업을 잃은 민정, 권해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전직 군간부 김노인 역을 맡았다.

또 아역 배우 이레가 생존을 위



해 운전대를 잡은 아이 준이, 아역 배우 이에원이 남다른 생존력을 키운 아이 유진, 김민재가 인간성을 상실한 631 부대 소대장 황중사 역을 맡았다. 더불어 구교환이 겉과 속이 다른 631 부대 지휘관 서대위를 연기한다.

강동원은 처음에는 전작이 있는 작품이라 출연을 꺼렸다고 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봤다. 배우로서 전작이 있는 작품의 뒷 얘기를 하는 게 약간은 부담될 수 있겠고 배우로서 욕심이

떨 날 수 있는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 재밌게 봤다”며 “한국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보여주는 영화가 없어서 그런 영화에 참여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에서 강동원은 좀비들과 여러 액션 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액션 스텝에 가서 액션을 배우지는 않았다고 해 놀라움을 줬다. 이전 영화들에서 액션을 많이 배워 더 배울 게 없었다는 설명이다. 강동원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물어봐도 액션팀에서

특별히 배울 게 없다고 하더라”며 “거의 예전에 다 배웠던 거다. 저는 삼급자 코스는 거의 끝났다”고 말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정현은 출연 전부터 연상호 감독의 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좀비물 너무 좋아하고, 감독님의 ‘부산행’을 너무 재미있게 봤다. 극장에서 4~5번 봤다”며 “연상호 감독님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무 깜짝 놀랐다. 워낙 팬이어서,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다”고 말했다.

## 슈퍼주니어-K.R.Y. 미니1집...주간 음반차트 1위

전 세계 30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 차지



그들 슈퍼주니어-K.R.Y.의 첫 번째 미니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When We Were Us)’이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지난 8일 발매된 슈퍼주니어-K.R.Y.의 미니 1집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은 한터차트 6월 2

주차 (8일~14일) 주간 음반 차트와 가온차트 24주차 주간 리테일 앨범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슈퍼주니어-K.R.Y.는 새 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로 과테말라, 뉴질랜드, 대만, 러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바레인, 불가리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오만,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태국, 페루, 파나마, 필리핀, 홍콩 등 전 세계 30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해 글로벌적인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 곡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은 후반부로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트랙 편곡과 스트링 라인이 돋보이는 발라드 장르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녹여낸 가사가 특징이다.

## 조진웅 “‘사라진 시간’ 연출한 정진영 감독 존경”

“정진영 감독에 용기 얻어...부지런한 학구열 닮고 싶다”

배우 조진웅이 ‘사라진 시간’을 연출한 정진영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는 영화 ‘사라진 시간’(감독 정진영)의 주연 조진웅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사라진 시간’은 의문의 화재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특히 ‘사라진 시간’은 스토리 원안부터 각본까지 직접 준비한 배우 정진영의 감독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진웅은 극 중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사라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필사의 추적을 하는 형사 형구 역을 맡았다. 형구는 의문의 화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시골 마을을 찾았다가 화재사건이 일어난 집에서 깨어나게 되고,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선배님이라 부르는

기이한 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 조진웅은 “저도 단편영화 연출 작업도 해보고 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연출이 힘들까, 매니지먼트가 힘들까, 돈 대는 게 힘들까’ 고민이 되더라”며 “하지만 막상 모두가 그 장면에 들어가게 되면 아예 그런 생각은 날아가고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뛰어나게 된다.

배우의 동선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화면 뒤의 동선은 이해해도 몰랐다. (제작진이) 정말 너무 고맙더라. 이걸 알아서 이젠 대충 더 못하겠더라”고 고백했다.

정진영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서는 “선배님께서 배우 겸 감독을 겸하시니까 굉장히 소통하기 편하더라”며 “정진영 감독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 과정을 꼭 지켜봤으니까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배님이 정말 귀감이

되겠다. 많은 부분이 그랬다”면서 “배우 겸 감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이다. 소통이 가장 편하다. 본인도 어디가 가려운지 알고 계신다. 그런 부분이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정진영 감독은 자신과는 스타일이 다른 감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진웅은 “감독도 여러 타입으로 나뉘신다. 정진영 감독님은 부지런한 학구열이 있으신데 저는 노력형은 아니다”라며 “감독님을 보면서 감독은 가방 끈이 많이 길어야 하나 했다. 저는 감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많다.

부지런한 점은 닮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감독님은 그때 3시간 이상 못 주셨다.

항상 편직하고 계시고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 하시더라. 본인도 계속 연구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회상했다.

한편 ‘사라진 시간’은 오는 18일 개봉한다.

## 송승헌 · 손나은, 눈호강 투샷...‘저녁 같이’ 비주얼 커플

맛있는 한끼 로맨스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월, 화 오후 9시30분 방송



배우 송승헌과 손나은이 비주얼 투샷을 공개했다.

송승헌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해경 · 진노을...저녁 같이 드실래요”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피란 하늘과 푸른 잔디밭에 서 있는 송승헌과 손나은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두 사람의 독보적인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송승헌과 손나은은 MBC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는 이별의 상처와 홀로(Alone) 문화로 인해 사랑 감정이 퇴화된 두 남자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썬타웃 서로의 매력에 빠져게 되는 맛있는 한끼 로맨스 드라마로 매주 월, 화 오후 9시30분 방송된다.

##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 7월 결혼...예비신랑 대학병원 의사

기상캐스터 전소영(30)이 ‘7월의 신부’가 된다.

웨딩 업체 해피메리드컴퍼니 측은 16일 “전소영이 오는 7월18일 오후 서울의 모 호텔에서 한 살 연상의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와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웨딩 화보에서 전소영은 청순하면서도 발랄한 예비신부의 드레스 자태를 뽐내고 있다. 단아하면서 작은 얼굴과 뚜렷한 이목

구비 등으로 한국적인미를 드러냈다.

전소영과 예비신랑 김씨는 3년 전 전소영의 고등학교 후배 소개로 처음 만났다.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전소영이 석사 과정을 마친 뒤인 지난해 말부터 결혼 준비를 해왔다.

전소영의 결혼식은 주례 없이 청순하며, 축가는 전준영 PD와 예비 시동생이 각각 부를 예정이다. 사회는 전소영의 지인이 맡는다.

신혼여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지 않으며, 신집살림은 친정인 여의도 인근에 마련했다.

한편 1990년생인 전소영은 서강대학교에서 프랑스로문화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난해 석사 졸업 후 현재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5년 MBN 기상캐스터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소영은 이듬해 SBS로 옮겨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이다.

## 오마이걸 비니, ‘썸튼 2020’ 주인공에 이어 OST 참여



16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비니가 웹드라마 ‘썸튼 2020’에 출연하는 데 이어 OST 가창에도 참여했다”며 “비니가 부른 OST ‘온통 이 세상은 너로 돼 있어’가 이날 오후 6시 공개된다”고 전했다.

‘썸튼 2020’에서 비니는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나가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대학생 서예진 역할을 맡아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OST 가창도 맡아 작품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웹드라마 ‘썸튼 2020’ OST ‘온통 이 세상은 너로 돼 있어’는 청춘물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기타 사운드와 비니의 사랑스러운 목소

리가 어우러진 노래다. 마치 남녀가 썸을 타는 듯 주고받는 멜로디는 귀가에 감미로운 여운을 남긴다. 비니는 사랑에 빠지기 전 설레는 마음을 섬세한 보컬로 표현해 극의 몰입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웹드라마 ‘썸튼 2020’은 KT가 ‘썸튼x오마이걸’을 각색해 제작한 로맨스 웹드라마로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1시에 Sezn(시즌) 앱과 슈퍼VR의 ‘썸튼x오마이걸관’에서 만날 수 있다. 비니가 가창한 ‘썸튼 2020’ OST ‘온통 이 세상은 너로 돼 있어’는 1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